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22期(2026.11.10) WWW.MINGHUI.ORG 한글판 1086호 minghui.or.kr



▲ 2026년 10월 23일 정오 무렵, 호주 전역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멜버른에서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번 퍼레이드는 호주 파룬궁수련자 연례 수련심득교류회 시리즈 행사의 일환이다. 마침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처음 호주에 오셔서 설법하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올해 법회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38만 4034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고난 속에서 법을 붙잡고 수련하며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다
【중국법회】 대법 안에서 정념과 지혜를 수련해 내다
【중국법회】 한 차례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
【해외법회】 집착을 버려 그것이 자신의 치명상이 되지 않게 하다

〈목차〉

제23회 중국법회

고난 속에서 법을 붙잡고 수련하며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다 …… 3

대법 안에서 정념과 지혜를 수련해 내다 …… 15

한 차례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 …… 26

삼퇴 명단을 발송하며 심성을 착실히 수련하고 자신을 제고하다 … 34

자신을 잘 수련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생을 구하다 …… 38

좋은 사람 …… 47

여든 넘은 어머니와 함께 200여 개 마을에 진상을 알리다 …… 58

해외법회

수련에 노력해 세상 사람을 구하다 …… 66

집착을 버려 그것이 자신의 치명상이 되지 않게 하다 …… 7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제가 이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에는 그가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 초대는 분명히 교란이었습니다.

그 후 이 고비는 또 한 번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저는 고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떤 공법 동작을 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들의 사부가 제 앞에 와서 저에게 이 동작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손을 등 뒤로 하고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게 일어난 몇 가지 아름다운 안배만을 공유했지만 사실 아주아주 많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매번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대법의 기적과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지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비를 더 수월하고 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룬따파 창시자 리훙쯔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제 곁에 함께하시고 시종일관 자비롭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 원고)

비에 직면하면 저는 법을 통해 힘을 얻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른 공간에서 온 고비

수련을 시작하고 약 3년 후 저는 천목으로 '전법륜(轉法輪)'에 묘사된 천목이 열리는 장면을 여러 번 똑똑히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그것이 꽃잎처럼 뒤집힐 것인데, 마치 영화·텔레비전에서처럼 꽃봉오리가 순식간에 피어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 붉은 색은 원래는 평평한데, 단번에 가운데서부터 부풀어 올라 끊임없이 뒤집히고 끊임없이 뒤집힌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전부 뒤집어 넘기려 한다면, 10년 8년이라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온 천목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전법륜)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광경이었는지 기억납니다!

얼마 후 책에 묘사된 또 다른 정경도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어느 날 당신은 한 높고도 큰 대신선(大神仙)이 온 것을 보게 된다. 이 대신선은 당신을 두어 마디 칭찬해 준 다음, 당신에게 무언가를 좀 가르쳐 주는데, 당신이 또한 가진다면 당신의 공은 곧 난잡해진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를 사부로 모시고 그를 따라 배우지만,"(전법륜).

어느 날 제가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키가 큰 남자가 제 앞에 왔는데 그는 긴 흰색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초록색인, 자애로움이 가득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비록 입은 열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아이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저를 부르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

중 국 법 회

고난 속에서 법을 붙잡고 수련하며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다

— 2008년 중공 올림픽 개최 당시 감금됐던 기간의 수련 경험 —

글/ 중국 푸젠성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여름, 중공 악당은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 대법제자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납치했고, 저 역시 노동수용소로 납치됐습니다. 검은 소굴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어떤 감방에 독방으로 감금됐습니다. 이 감방은 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실내에는 도청과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며, 노동수용소에서는 1~2명의 바오자(包夹, 수련생을 감시하는 수감자)를 배치해 실내에서 전담해 대법제자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1. 법을 스승으로 삼아 박해를 해체하다

노동수용소에는 '전담 관리팀'이 설치돼 있어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고 박해하는 일을 전담했는데, 불법적으로 잡혀 온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전부 이곳에 집중적으로 갇혔습니다. 모든 감방에는 감시 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매일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동수용소의 각 노동팀에서 수감자를 선발해 전담 관리팀으로 보냈고, 이들은 경찰의 훈련을 거친 후 경찰과 협력해 파룬궁수련생을 매일 24시간 동안 밀착 감시했습니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더 많이 전향시킬수록 더 많은 상금과 복지 혜택을 받고 승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오자는 경찰에게 더 잘 협조하고 파룬궁수련생에게 더 악랄하게 굴수록 형기를 감면받아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동수용소의 경찰과 수감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해 공동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습니다.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전향을 거부하는 모든 수련생은 전부 독방 감방에 따로 갇혔고, 창문과 유리는 모두 두꺼운 종이로 빈틈없이 발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실내에 갇혀 문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채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같은 층의 십여 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공공장소, 복도, 화장실, 욕실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로소 바오자의 인솔하에 감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구매해야 하는 일상생활 용품은 먼저 쪽지에 적어 바오자를 통해 경찰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치약, 비누, 화장지만 살 수 있었고 매달 소비 금액은 최저 한도로 제한됐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외부 업무를 보는 수감자가 일괄적으로 매점에서 구매해 바오자에게 넘겨주면, 다시 바오자가 파룬궁수련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담 관리팀이 설치한 이런 '감옥 안의 감옥'은 파룬궁수련생의 모든 인신 자유를 최대한 박탈했고, 당연히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면회 권리도 박탈했습니다. 전담 관리팀이 중점적으로 박해해 전향시키려는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A 감방에 독방으로 갇혔는데, 이곳의 바오자는 모두 선발된 억지스럽고 교활하며 독한 자들로 여러 번 노동수용소에 들어온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수용소 검은 소굴에 들어가자마자 A 감방에 갇혔습니다. 바오자는 감옥경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주 고의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낮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문을 열어 제가 화장실에

많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이야기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자유의 종 건물로 들어가는 줄은 매우 길어 우리의 연공장과 자료 테이블 앞을 지나갑니다. 줄이 아주 천천히 이동하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연공을 보고 포스터와 현수막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정보 테이블로 와서 팸플릿을 가져가거나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줄이 인도 반대편을 따라 서기 시작해 우리의 연공장에서 멀어졌고 관광객들은 더 이상 우리 포스터를 지나가지 않아 진상을 알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연공할 때 저는 발정념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한 경비원에게 가서 줄을 다시 올바른 경로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그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지만 이내 늘 사부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부님을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경비원이 자유의 종 건물에서 걸어 나와 관광객들을 우리가 연공하는 쪽을 마주 보며 줄을 서도록 안내했고, 그래서 이후 모든 사람이 우리 전시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생각하고 나서 줄이 다시 서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우리의 문제가 종종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모두의 몸에 대법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적은 셀 수 없이 많고 우리도 항상 사부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있으며 사부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

같은 집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에게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반영된 이런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제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면,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저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수련생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내면을 살펴 저에게 남을 평가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욕망,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생각, 혹은 오만한 태도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즉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수련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저는 지금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좀 나눠도 될지 먼저 묻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면 저는 최대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려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같은 집착을 관찰한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집착과 관련된 도전에 제가 어떻게 직면했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이 일련의 방법을 따르면 결과는 보통 긍정적입니다.

우리의 정념과 신념

저는 정념과 명확한 사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점점 더 깊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년간 저는 다행히도 필라델피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관광 명소인 자유의 종에서 전개하는 중생구도 항목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현지 팀에서 교류할 때마다 항상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용품은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고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 끼 식사는 모두 외부 업무자가 문 앞까지 건네주면 바오자가 실내로 가져왔는데, 때로는 저를 먹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1인분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 반대로 경찰에게는 제가 단식하며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자정까지 서 있는 벌을 받아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저는 끓인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당시에는 보온병에 약을 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인 화장지조차 미루면서 사지 못하게 하는데 인간성이라는 게 없습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성(黨性)을 중시하지 인간성은 따지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24시간 실내에 갇혀 문밖으로 반걸음도 나갈 수 없으니 가장 기본적인 인신 자유조차 없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여기엔 오직 독재하고 독재를 받는 관계만 있을 뿐 다른 관계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 엄마는 왜 널 외국에서 낳지 않았지?”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기 위해 그들은 어떤 수단이든 다 썼습니다.

저의 일언일행과 표정에서 만약 바오자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들은 즉시 경찰 사무실에 가서 보고했고, 경찰은 방에 들어와 저를 한바탕 훈계하고 욕설을 퍼부은 뒤 오랜 시간 똑바로 서 있는 벌을 주었으며 바오자는 곁에서 감시했습니다. 매일 TV를 켜두었는데, 중공 악당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외에는 대법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틀어댔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바오자는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녀가 아무리 떠들고 위협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법을 외웠습니다. 이후 바오자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이른바 노동수용소 규정을 소리 내 외우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도원이 들어와 저에게 오랫동안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아침 경찰이 제게 노동수용소 규정을 소리 내 외우라고 요구할 때마다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넌 눈치 좀 챙겨라. 너 같은 녀석을 우리는 수없이 봤어." 저는 마음속으로 일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감당해선 안 될 고난을 감당하지 않겠다.'

2. 박해에 직면해 절대 묵인하지 않다.

박해에 직면해 만약 사상 속에서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무의식중에 구세력의 배치를 인정한 것이 돼 사악은 박해를 진행할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경찰이 제게 손을 대려 할 때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면 나는 나간 후에 전 세계에 폭로하겠습니다." 혹은 경찰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조만간 청산하러 올 것입니다." 이럴 때면 그들은 보통 묵묵히 물러났고, 옆에 있던 바오자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감히 이렇게 못하는데."

감방 안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일상용품, 옷, 신발 등 개인 물품은 전부 하나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야 했고, 다른 곳에 흩어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감방 안 주변과 플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제가 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시달리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2장 공법을 연공할 때 그 일이 저를 너무나 씁쓸하고 상처받게 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 저는 계속 연공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장막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집착을 분명하게 보았고 마침내 제가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부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 눈앞의 안개를 걷어내 주셨고 이후 제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원망심은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이미 사람들과 함께 수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수련생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모두 안으로 찾아 그 뿌리 깊은 집착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생과 교류하며 본 집착

보통 다른 수련생에게 집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저는 그들과 교류하려 시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항상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가장 좋을 때도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정도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착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도

망이 싹튼 것을 보시고 즉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우리 팀의 몇몇 수련생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이는 속인이 보기에는 그랬고,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제 반응도 속인과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불손하게 말했을 때 단 한 사람만 저를 위해 나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일 연속으로 저는 매우 낙담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법공부나 연공을 할 수조차 없었고 혼자 수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원망심을 제거할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깊이 반성했을 때 저는 또 새로운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러시아어 수련생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 그들이 저를 좋게 대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반성할 때 저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타적이고 사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저는 또 사부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죄업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셨으며,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완수해 사명을 이행하도록 이끄실 뿐입니다.

저는 또한 항목에서 수련생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저의 어떤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원망심과 그 이면의 모든 심리적 짐을 내려놓을

라스틱 상자 속 물건을 수색하곤 했는데, 종잇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으며, 실내에 대법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없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침대 옆 낮은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 경찰이 들이닥쳐 곧장 제 침대 쪽으로 와서는 돗자리를 홱 걷어내고 침대 널빤지 위와 바닥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고 수색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분통을 터뜨리며 가버렸습니다.

노동수용소에 새로 온 파룬궁수련생이 또 불법적으로 갇혔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독방이 부족해 저녁 무렵 제가 있는 감방에 수련생 한 명과 바오자 한 명이 또 배정됐습니다. 한번은 바오자와 제가 화장실에 갈 준비를 할 때, 수련생이 제게 양치 컵을 건네며 세면대를 지날 때 마실 수돗물을 한 컵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겨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온병에 끓인 물이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두 바오자가 말하는 틈을 타 작은 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보온병에 약을 탔어요.”

저는 A 감방에 있을 때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바오자는 붉은색 보온병 하나를 가리키며 저는 이 병의 물만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보온병에 약을 탔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을 따라 마시러 갈 때 바오자가 고개를 살짝 돌려 곁눈질로 제가 물을 따르는 것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대장이 감방을 순찰하다가 감방에 파룬궁수련생 한 명이 늘어난 것을 발견하자 안색이 변하더니 즉시 그 수련생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보온병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이나 국에 넣을 거다. 우리에겐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저는 당시 마음이 매우 평온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것은 한번은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화장실 안에는 저 혼자였고 바오자는 화장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짙은 약 냄새가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독한 약 냄새가 나지?”

어떤 경찰은 제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해야 한다.” 저는 그때 그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이 일들을 돌이켜보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적지 않은 물을 마셨는데 왜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자 체내의 정체불명 약물과 좋지 않은 것들을 전부 배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 시시각각 마음속으로 법을 외우고 정념을 발하다

사악이 가득한 검은 소굴에서, 완전히 폐쇄된 고압적인 박해 속에서 수련인의 사상이 일단 법을 떠나면 순식간에 악한 파도에 집어삼켜질 것입니다. 저는 닫힌 상태에서 수련했는데, 1998년 말에 법을 얻은 때부터 지금까지 제 천목으로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으며, 오직 법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노동수용소에서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법을 외웠고, 하루도 감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외울 때는 여러 교란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법을 외울 때 입술이 약간 움직였는데, 이를 본 경찰이 제 옷깃을 덥석 움켜쥐고는 있는 힘껏 저를 세게 벽으로 밀어붙였으며,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

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 단 한 명의 수련생만 나서서 저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안타깝게도 저는 멈춰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원으로서 저는 먼저 팀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 내면의 집착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쉽게 불쾌해하고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타인의 감사를 기대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 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르지 못한 요소를 인식했으면서도 침묵을 지킨 사람들에게 원망심을 품었습니다.

비록 당시 상황은 빠르게 해결돼 모든 것이 결국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사악이 우리 팀을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집착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고 이런 집착을 제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명혜망에서 2026년 6월 8일 통지를 봤을 때 저는 그 통지가 저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항목 회의에서 주요 협조인이 그 글의 한 단락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우리 수련자들을 파멸시키려는 생명들은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에야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뿌리 깊은 집착을 식별해 제거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제 마음속에 근본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강렬한 소

묘사하기에는 정말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몇 가지 집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 경험 일부를 공유하려 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든 그것이 곧 당신의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수년 전 러시아어를 하는 수련생들이 어떤 항목의 총 협조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수련생이 그녀의 항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수련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수련생들을 위해 법공부 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이것이 우리가 정법시기에 맡은 역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법공부 팀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매일 법공부와 연공을 위한 아침 수련팀도 조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체로 수련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몇 년 전 일부 수련생이 경험을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꼭 수련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추억 등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교류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고 권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의 교류가 대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저는 우리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수련은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일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엄격하게 원칙을 따라야 하며 대법에서 벗어나서

다. 저는 이것이 다른 공간 사악의 교란임을 알았기에 경찰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오자가 고의로 대법을 비방하는 영상의 음량을 최대로 높였고, 밀폐된 방 안에서 고음량의 소리가 울려 사람을 짜증나게 했으며, 바오자 자신도 이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문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력해 저 자신의 마음을 평정했고, 소음에 시달려 한 단락의 법을 완전하게 이어서 외울 수 없을 때면 저는 ‘홍음’을 외웠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이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항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논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논어’를 어디까지 외웠는지 열심히 떠올리려 했으나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우다 보니 몽롱해짐을 느꼈고, 저는 애써 눈을 떴는데, 꽉 끼는 검은 옷을 입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제 침대 곁에 서서 두 개의 검은 팔을 저를 향해 끊임없이 휘두르는 것을 보았고, 저는 의식이 흐려져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등 부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솜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제 등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것은 식은땀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게을리하지 않고 여전히 법을 외웠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방법과 수단도 제가 매일 마음속으로 법을 외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논어’, ‘홍음’을 외우며 저는 그 가장 힘들었던 밤낮을 보냈습니다.

저는 법을 외우는 것 외에는 정념을 발했는데, 정념을 발하는 것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지만, 우선 반드시 매우 순

수하게 정념을 발해야만 비로소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은 바오자가 괴롭히며 제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저는 평온하게 정념을 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종일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았고, 반면에 두 바오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놀라워하며 소곤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낮에는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가기만 해도 바오자가 이를 저지하고 손을 떼어냈으며 경찰에게 보고했으므로 저는 낮에 정념을 발할 때 손 자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저는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세우고 정념을 발했습니다. 감방에서는 시간을 볼 수 없었지만, 매일 밤 10시 정각이 되면 노동수용소에서는 음악 소리가 두 번 울렸습니다.

매일 밤 전 세계 0시 발정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낮에 어떤 TV 프로그램의 화면 오른쪽 아래에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시간을 보면서 저는 ‘논어’와 정해진 ‘홍음’ 몇 수를 속으로 외웠고, 16분에 한 번씩 외우도록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두 번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저는 10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논어’와 ‘홍음’을 연속으로 7번 외우고 나면 거의 0시 발정념 시간이 됐습니다.

4. 정념을 지키고, 유도에 넘어가지 않으며, 대응하지 않다

전담 관리팀은 매일 밤 한 명의 경찰이 당직을 섰습니다. 지도원, 대장, 제 담당 경찰이 당직을 설 차례가 되면 그들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며 저를 사상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했는데, 태도가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지도원은 저를 몇 마디 칭찬하기도 했고, 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등의 뜻을 내비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저는 거의 매주 금요일 도심의 진상 알리는 곳에 갔습니다.

한번은 일기예보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진상을 알리러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하늘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고 비도 그쳤습니다. 그날 도심에는 오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저는 수련생과 진상을 알리며 박해에 반대하는 서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은 유한한 층차에서 체득한 제 경험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호주 법회 원고)

집착을 버려 그것이 자신의 치명상이 되지 않게 하다

글/ 미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행히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은 경지가 승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은 거의 열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삼퇴'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탈퇴 후 그들은 제게 고마워하며 이런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체득하며 저는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꾸준히 한 덕분에 전화로 진상을 알리는 일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번은 저희 팀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불과 며칠 만에 여러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저희는 함께 안으로 찾고 교류했으며 단체 법공부 장소에서 다 같이 발정념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정체의 힘은 저희가 수많은 계정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줬고 더 많은 중국인이 진상을 알고 중공 관련 조직에서 탈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번은 인터넷 연결이 끊겼는데도 말로 진상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수련생과 저 사이의 연락은 물론 중생과의 대화도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전화를 듣던 사람도 기분 좋게 '삼퇴'를 했습니다.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후 사람을 구하려는 제 정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호주에 온 이후 저는 외딴 지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이용해 거처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도심으로 가 수련생과 함께 연공한 뒤 전단지를 나눠주며 진상을 알렸고 박해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걸어서 더 외진 지역까지 가 진상을 알리고 연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받아들이며

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길길이 뛰며 저를 가리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든, 온화한 얼굴로 자신이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듣기 좋은 말을 하든 저는 모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저를 전향시켜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본 경찰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중공이 너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공은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후 저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담 관리팀은 또한 때때로 이미 전향한 수련생들을 제 감방에 배치해 경찰을 도와 저를 전향시키게 했습니다. 저는 사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황당하고 우스워 그녀에게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그런 다음 가버렸습니다.

한번은 경찰들이 이미 전향한 수련생 몇 명을 제 감방에 배치했는데, 그들은 사람이 많으면 힘도 커져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들 별로 말이 없었고 약간 난처해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이후 누가 먼저 자신이 애초에 어떻게 천안문에 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치며 몇 마디를 보탰습니다. 점차 누군가는 자신이 어떻게 법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즐거운 교류회 같았습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즉시 서둘러 끝냈으며 곧바로 그들을 전부 불러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다시는 이미 전향한 수련생을 제 감방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명의 경찰이 찾아와 각자 손에 의자를 들고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으며 저를 일으켜 자신들과 나란히 앉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원래 앉아 있던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묻든 저는 시종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켰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상대의 수에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저 혼자 정념을 발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해진 것을 느꼈을 때, 바오자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저 사람들 갔어!” 저녁 무렵 밀폐된 유리창 너머로 바오자가 복도에서 다른 바오자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와, 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 경찰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그녀(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미동도 않더라.”

5. 오직 착실히 수련해야만 비로소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을 수 있다

저는 갑자기 철통처럼 밀폐된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감방에 홀로 갇혔고, 수련생 간의 만남과 교류도 없었으며, 사부님의 경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고압적인 박해하에서, 만약 평소 다져놓은 착실한 수련의 기초가 없었다면 걸어지나오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저는 A 감방에 대략 백여 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독방 감방에 있을 때 대장이 또 경찰을 데리고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짐을 좀 챙겨서 A 감방으로 가라.” 저는 대장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전향하지 않겠습니다!” 대장도 제가 전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에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저는 호기심과 경고가 섞여 있으며 동시에 약간의 의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이해하며 평온함을 유지하고 선의로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의 학습 상황과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가르침의 방식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9자 진언’, 진상 연꽃, 대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박해와 중국공산당(중공)의 거짓말과 기만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 의문을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져 파룬궁 진상을 이미 이해한 듯 보였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아이들을 선생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게 고마움을 전했고 떠나기 전에 먼저 진상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단숨에 한결 가벼워졌고 속이 후련해졌으며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가지(加持)에 감사드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행운스럽게도 중국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에 참여하도록 안배받았습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는 감동적인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은 한 학생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이 중병을 앓았을 때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알려준 진상이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입원 기간에 그는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마음속으로 외웠고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은덕과 대법의 위력이 나타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무척 놀랐고 이는 제가 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진상을 알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기꺼이 귀 기울여 듣고 진상을 받아들였으며 어떤 학부모들은 책을 읽고 연공하고 싶다며 제게 책을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깊이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방금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설 때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치는 두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마음이 조금 긴장됐지만 저 자신을 다독이며 가장 먼저 사부님께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길래 두 아이가 집에 와서 온종일 선생님 이름을 말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 공안국에서 파룬궁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두 아이는 집에 오면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그 아홉 글자도 말하며 선생님이 준 연꽃을 책가방에 달아달라고 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쟤는 원래 저런 화강암 같은 고집불통이라 우리도 방법이 없어."

이후 그들은 저를 더 이상 감방에 홀로 가두지 않았고, 비록 여전히 바오자 한 명을 배치해 그림자처럼 제 곁을 바짝 따라다니게 했지만, 저는 자유롭게 감방을 드나들며 화장실에 가서 씻거나 용변을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 용품을 사는 것도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한번은 전향된 수련생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게 접근해 윗옷 자락을 걷어 올리며 마치 허리띠의 꽉 묶인 매듭을 풀어달라는 척했고, 저는 그녀를 도와 풀어주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형기를 채워서 내일 아침이면 노동수용소를 떠나 집에 가요." 그러면서 은밀히 제게 몇 가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바오자가 아직 쫓아오지 못했을 때 서둘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사부님의 신경문을 보세요." 그녀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맺음말

제가 노동수용소를 떠나기 전날 밤, 차례로 세 명의 경찰이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제가 돌아간 이후 현지 경찰의 강화된 감시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610'은 제가 전향하지 않았음을 파악했고, 본래는 계속 제 형기를 연장하거나 세뇌반으로 보낼 타산이었으나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도 저를 집에 가게 해주었지만, 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찰은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동정을 표했는데, 이는 이 경찰들이 비록 박해에 참여했지만 양심이 아직 남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불법 강제노동을 당한 것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암을 앓고 계셨고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검은 소굴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끝내 견디지 못하시고 제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 저의 마지막 혈육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수련이 몹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줄곧 견지해 나갈 것이며, 저를 견지해 나갈 수 있게 한 것은 대법에 대한 저의 이성적인 인식입니다. 저 역시 수련의 엄숙함을 깊이 느끼며,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의 이 마음을 수련해야만 비로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법에서 법을 인식할 수 있고, 대법을 꽉 쥐고 진정하게 수련하고 착실하게 수련할 수 있기만 하다면 구세력의 모든 배치를 타파할 수 있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은 매우 좁고 몹시 험난하지만 지나가려 한다면 착실히 수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이런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저는 사부님의 관련 설법을 많이 외우고 베껴 썼으며 동시에 발정념을 해 그것들을 제거하고 구세력의 모든 안배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3.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명이다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수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중대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환경입니다.

예전에 중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고 시비를 가리도록 도와주며 도덕성이 높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장난이 심하고 규율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반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학생들은 수업 질서가 어지럽고 집중력도 없었으며 교칙도 자주 위반해 저는 여러 차례 피로와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음을 깨달은 후 저는 안으로 찾기 시작했고 발정념으로 좋지 않은 생각과 환경의 교란을 청리하는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시간을 내어 학생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선인(眞·善·忍)' 법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점차 교사와 학생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저를 떠올릴 때마다 학생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종 목적' 등의 책을 음성으로 들으며 당문화의 본질과 이런 교란 배후의 좋지 않은 요소들을 분명히 인식하려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찾았을 때 저는 이런 교란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색욕심, 정에 대한 추구, 속인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련해 제거해야 할 집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공을 마친 후 한 수련생이 제게 "당신 뒤에 작은 귀신이 하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무척 기뻤고 이것이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발정념에 관한 교류 글을 읽은 후 바른 자세로 가부좌를 하고 45분간 발정념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청리하는 5분 동안 갑자기 끝없이 넓은 공간에서 온몸이 끊임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그곳에서 저 혼자만 끝없이 거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영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머리가 더욱 맑아졌고 업력 교란의 가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대법의 위력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수련 상태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겼고 다시 처음의 정진하던 상태로 돌아왔으며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도 더욱 순조로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진상을 받아들이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수련생들도 함께 협조하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격려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이런 집착이 다시 나타나 수련과 사람 구하는 일을 교란했습니다.

대법 안에서 정념과 지혜를 수련해 내다

글/ 중국 대법제자 초안·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대법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 여름에 법을 얻은 노(老) 대법제자이며, 올해 71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그만두어 글을 써본 적이 없지만,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다가오는 즈음,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리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실증하기 위해 펜을 들어 수련 중의 작은 이야기 몇 가지를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층차와 수준이 제한적이라 일부는 제가 구술하고 셋째 언니가 대필했으며, 또 수련생이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절망적일 때 인연이 닿아 법을 얻다

1) 절망적인 처지

법을 얻기 전, 제 팔자는 너무 기구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딸 모녀를 돌보지 않았으며, 빚까지 잔뜩 졌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는 모두 저를 괴롭혔고, 자주 저와 딸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사방의 채권자들은 남편을 찾지 못하면 저를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시어

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침 먹을 돈도 없어서 점심때 공장에서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친정올케가 사준 것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갚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말 돈이 없는 것을 보고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은 밥 한 그릇이 있는 것을 보고, 데워 먹고 다시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려 했습니다.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밤 8~9시가 돼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밥그릇을 단숨에 빼앗아 바닥에 엎어버렸고, 물 한 대야를 부어 연탄난로마저 꺼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밭으로 일하러 갔고, 그제야 시동생과 시누이의 매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 법을 얻다

1998년 여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할 때, 둘째 언니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하니, 언니는 마침 리훙쯔 사부님의 지난(濟南) 설법 녹음을 듣고 있었고 저도 따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마음속으로 사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제1강을 다 듣고 났을 때, 온몸이 떨리더니 뜨거운 기류가 정수리에서 '쏴' 하고 발바닥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언니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언니는 기뻐하며 "너는 파룬따파와 인연이 정말 깊구나, 1강 설법만 들었는데도 사부님께서 네게 관정(灌頂)을 해주시고 신체를 정화해주셨어, 빨리 대법을 수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좋아! 수련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여러 해 동안 쌓였던 번뇌가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둘

저도 대법 진상을 알려주고 연꽃을 선물했는데 상사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변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색욕심을 제거하다

제가 참여하는 사람 구하는 항목은 소셜미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안 경계심을 늦춰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수많은 짧은 동영상에 끌렸고 점차 그런 오락 콘텐츠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반응을 남기는 것이 계정 활성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연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이런 콘텐츠를 봤습니다.

저는 연공장에서 정한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련 상태도 예전처럼 정진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에 집착이 생겼다는 것을 의식했지만 도무지 철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집착을 수련해 제거하고 싶었지만 마치 어떤 힘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법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감히 사부님의 법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몸에도 업력 교란의 가상이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명혜망에 올라온 이 방면의 교류 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동시에 '9평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해체', '공산주의의

이곳의 일은 제게 힘들고 고됐지만 매번 연공을 마친 후에는 몸의 불편한 느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와 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 짜증을 내고 화를 냈으며 때로는 제게 큰 소리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심지어 영어 회화 강좌까지 샀지만 효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었고 상사는 이에 매우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며 문제의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의사소통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상사와 함께 일할 때 나는 진정한 수련인의 마음을 보여줬는가? 정말 상사를 배려했는가?'

깊이 찾아본 후 저 자신에게 불평하는 마음, 승복하지 않는 마음, 교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상사를 진정으로 선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접촉할 때마다 저는 안으로 찾으려 노력하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선의로 풀어나갔습니다. 동시에 발정념을 해 제 좋지 않은 생각을 제거했습니다.

그 후 상사와의 관계는 개선됐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제게 들려줬고 정원에서 직접 기른 작물을 선물했으며 손수 만든 과자도 가져다줬습니다.

째 언니는 제게 5장 공법을 가르쳐주었고, 또 보서(寶書)인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모셔다주었으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수련 한 달 만에 온 가족이 혜택을 보다

1) 가부좌를 할 수 있게 되다

집에 돌아와 '전법륜'을 펼쳐보니, 아! 책의 글자마다 금빛이 반짝였고, 오색찬란한 파룬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보서이자 신서(神書)구나, 반드시 파룬궁을 잘 수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벽 3시가 넘으면 "빨리 일어나 연공해라!"라며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부님의 법신(法身)께서 부르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큰 고비는 제5장 공법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의 가부좌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사부님의 법신께서 또 "빨리 일어나 연공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연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의 법신께서 "일어나서 연공해라, 오늘은 다리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연공을 시작하자 정말 다리가 아프지 않았고, 결가부좌를 30분 동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결가부좌를 한 시간 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대법서적을 능숙하게 통독할 수 있게 되다

두 번째 큰 고비는 법공부를 할 때 모르는 글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종이에 베껴 적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대법의 주요 저작인 '전법륜'을 능숙하게 통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차 사부님의 다른 40여 권의 저작도 모두 능숙하게 통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

게 저는 부지런히 법공부하고 연공을 많이 했으며, 우주 특성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고, 곳곳에서 남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 넘기며, 가족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3)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명해지다'

한 달 후, 제 몸의 질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고, 딸도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도 모두 저에게 잘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고, 우리집도 화목한 대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명해지다(佛光普照, 禮義圓明)'일 것입니다!

3. 원망심 없이 심성을 지키다

1) 악인의 가해와 사부님의 구출

우리 공장에 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직업이 없어서 제게 시댁 연못에 자신의 남편이 오리를 기를 수 있는지 상의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오리가 전염병에 걸려 많이 죽어 밑지게 되자, 동료의 남편은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제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제 목을 졸라 4개의 핏자국을 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길질을 해 제 갈비뼈 두 대를 부러뜨렸으며, 저는 고통을 참기 어려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대인지심인가?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우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도 돌봐야 해서 쉴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고모는 밥을 짓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도 늘 불평하고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우리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수련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시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원망심, 쟁투심, 불평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른다면 이런 시험이 갈수록 커지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모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연세도 많으신데 내가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모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구나.'

고모의 생각을 이해한 후 저는 진실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고모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상자에 돈을 넣어두고 고모가 집안일을 직접 결정하시도록 했으며 더는 고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하지 않았고 동시에 시간을 내어 고모와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점차 우리 사이의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호주로 가는 비자를 받기 전에 고모도 법을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고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연공하고 매일 법공부를 꾸준히 하시며 수많은 기적도 겪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주에 온 이후 저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육체노동 등 수많은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연공하고 법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해외법회

수련에 노력해 세상 사람을 구하다

글/ 호주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련 과정에서 저는 대법의 수많은 기적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넓고 크신 불은(佛恩)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주 법회를 맞아 저는 지난 6년간의 몇 가지 수련 경험을 이야기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생활과 직장에서 선을 수련하다

수련 이전에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2020년 대법이 어머니에게 가져다준 신기한 일을 직접 목격한 후 어머니의 격려로 수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심성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는 딸과 고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수련 이전에는 고모와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장도 보고 아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참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찌 연공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전법륜)에 따랐습니다. 저는 그를 욕하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으며, 그와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제 덩치가 작지 않고 힘도 아주 셌지만, 저는 대법제자이기에 이것이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면 제 업을 없애주러 온 좋은 일임을 알았으므로 원망심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악독하게 저를 연못으로 끌고 가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고 익사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여기서 익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감전이라도 된 듯 즉시 손을 놓고 미친 듯이 물에서 기어 올라와 도로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비뼈를 다쳐 도무지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돌아왔다가 제가 연못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저를 구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에 과정을 간단히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려 했지만 저는 못 가게 말렸습니다. 남편이 또 경찰에 신고해 그를 잡아가게 하려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는 수련인이에요.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것은 천리이니, 모든 것을 사부님께서 주관하시게 맡겨둬요"라고 말했습니다.

2) 원망심을 내려놓자 천리가 실현되다

공장 동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그를 몹시 욕했습니다. "양심도 없이 남의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돈도 안 내더니,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 너무 악랄하구나.” 저는 갈비뼈를 다쳐 일할 수 없게 돼 두 달 넘게 병가를 냈습니다. 오지 못한 날짜의 일당, 의료비, 영양비도 모두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도 이 소식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둘째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생 어느 세에 그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가 저를 때렸으니 빚을 다 갚은 것 아니겠어? 만약 내가 빚진 게 아니라면, 그는 내게 덕(德)을 주어야 해. 덕이 있어야 공(功)이 높게 자랄 수 있으니, 이 모두 좋은 일 아니겠어? ‘착한 사람은 남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하늘은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만약 그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면 그가 무사할 수 있겠어?” 둘째 언니는 즉시 “네 말이 맞아, 우리가 그와 똑같이 굴지 말고 사부님과 신(神)께서 주관하시게 맡기는 게 최고지”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보가 정말로 실현됐습니다.

4. 근거리에서 정념을 발한 이야기

몇 년 전, 우리 수련생 몇 명은 자주 시 당위원회, 감옥, 구치소, 세뇌반 등지에 가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검은 소굴 안의 흑수(黑手), 난귀(爛鬼), 공산사령(共産邪靈)과 중공 악당 배후의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해 수련생들이 정념정행으로 하루빨리 검은 소굴을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 아래, 놀라기는 했지만 무사히 넘긴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1) ‘수련생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 수련생 몇 명은 X구 XX구치소에 가서 정념을

저희는 여러 해 동안 진상 알리기와 사람 구하는 길에서 분주히 뛰며 사존께서 바로 곁에서 제자들을 보살펴 주고 계심을 친히 느꼈고, 저와 어머니는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겠다는 서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사존께서 자비로운 제도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았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잡아준 덕분에 저희는 가져온 진상 자료를 모두에게 일일이 나눠주었고, 대법의 아름다움과 왜 삼퇴를 해야 하는지 알렸습니다. 한 어르신은 당원이었는데 진상을 분명히 알고 나서 삼퇴를 했습니다. 중공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룬궁이 좋은 걸 알아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고요.” 저는 감동해 어머니와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었고, 평소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자주 외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진상 자료가 제 역할을 발휘하게 하다

이 마을을 벗어날 즈음 가방에 진상 소책자 4권과 진상 소형 USB가 남아 있어서 저희는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길가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 저희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들인데 진상을 한번 보세요. 알아보시면 진상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들은 진상 자료를 받아 갔고 공청단이나 소년선봉대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탈퇴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상을 알리러 나갔을 때 비록 길에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저와 어머니의 사람 구하는 마음이 굳건하니 사부님께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공간의 교란을 돌파했기에 그 뒤에 사람 구하는 일이 아주 순조로웠던 것입니다.

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두 대와 5~6명의 경찰 및 보조 경찰이 들이닥쳤고, 이 광경을 보고 세 명의 수련생이 순식간에 도망치자 세 명의 경찰이 뒤쫓아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손에 채소 한 줌을 쥐고 있었기에 도망치지 않았는데, 한 노년 수련생이 동작이 조금 늦어 세 명의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련생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부님 도와주십시오, 수련생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채소를 들고 경찰차 앞으로 달려가 수련생의 손에 채소를 쥐여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뭐 해, 나 출근 늦겠어, 애가 아직 집에 있잖아.” 경찰은 순식간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수련생은 그 틈을 타 몸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정신을 차리고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너 파룬궁이지? 신분증 꺼내!” 저는 그들을 단숨에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출근하는데 신분증을 갖고 다녀요? 당신들이랑 말할 시간 없어요, 나 지각하겠어요!” 저는 발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네 명의 경찰은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지만 입으로는 외쳤습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마, 차 조심하고, 안전에 주의해!” 이는 아마 사부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신 것일 겁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우리 다섯 명의 수련생은 모두 무사히 몸을 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그들이 절 못 보게 해주세요’

어느 해, 우리 다섯 명의 수련생은 XX구의 사악한 XX세뇌반(중공 악당은 ‘법제학습반’이라 부름)에 가서 근거리에서 정념을 발해, 검은 소굴 안의 모든 사람 배후에 있는 흑수, 난귀와 공산 사령을 제거하고, 수련생들의 압력을 덜어주며, 세뇌반을 해체하

려 했습니다.

마침 한 수련생의 친정 여동생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을에 진상 스티커를 붙이고, 이어서 집집마다 '9평 공산당'을 배포한 후, 마지막으로 수련생의 여동생 집에 가서 근거리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뜻밖에도 한 마을 주민의 악의적인 신고로 파출소 경찰들에게 포위됐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쳐 수련생들을 한 명씩 데려갈 때, 저는 당시 마음속으로 오직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부님 보호해주세요, 그들이 절 못 보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몇 명의 경찰이 제 앞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셋째 언니에게 전화해 대학촌 쪽의 수련생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정념을 발해 오늘 XX세뇌반 밖에서 정념을 발하다 붙잡힌 수련생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수소문해 보니, 그들 네 명이 붙잡혀 차에 올라탄 후 A 수련생이 다른 수련생들에게 귓속말로 "내가 먼저 뛸 테니 그들이 나를 잡으러 갈 때 다 같이 뛰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가 경찰차에서 뛰어내려 순식간에 도망치자 세 명의 경찰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논두렁을 넘고 작은 도랑을 건너 멀리 달아난 후에야 경찰에게 포위됐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으나 제압하지 못했고, A는 다시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녀가 한 마을 주민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주민은 A의 온몸과 얼굴이 진흙투성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 여기서 잠시만 머물다 바

니다. 저는 "좋아요. 우리 골목으로 빠져서 갑시다"라고 했고 그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소"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골목 몇 개를 돌아 다른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살펴보니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좁은 길에는 차도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 차 한 대만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미 차를 안배해 두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순풍에 돛 단 듯 30여 리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룬궁이 좋은 걸 알아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곳은 아주 외진 곳이었고 저희 둘은 첫 번째 마을에서 집집마다 다니며 진상을 알렸는데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 두 번째 마을에 이르자 큰 나무 아래 한 무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는데 제가 재빨리 인원을 세어 보니 20여 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람이 좀 많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 상황을 봐가며 알리기로 하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파룬궁 사람들이 왔네." 그러고는 동시에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리 와요, 왜 그래요?" 제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라고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물어봐 봐요. 누가 감히 입을 뻥긋하기만 해봐, 내가 몽둥이로 팰 테니까."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저희를 일깨우시고, 저와 어머니에게 담력을 불어넣어 두려움을 없애 주신 것임을 깨달

다. 이렇게 먼 길을 달렸는데도 저희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기예보를 들으니 이것은 14급 강풍이었고 저희는 바람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무사했던 것은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덕분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뛰기는커녕 한 발짝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차 한 대만 달리고 있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저와 어머니는 사람을 구할 물품을 챙겨서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80여 리 떨어진 마을에 사람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를 타고 5리쯤 갔을 때 길가가 온통 경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 말로는 오늘 무슨 거물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차가 50리쯤 가다 멈춰 섰고 저희 둘이 내려 보니 도로가 전면 통제돼 통행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어머니는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대법을 굳게 수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니 층차를 제고함이 근본이로다 고험 앞에서 진성을 보나니 공성원만 하여 불도신이 되도다"(정진요지 2-진성을 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사람을 구하러 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저희는 각자 진상 가방을 안고 길 건너편으로 가서 삼륜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제가 차주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운행하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감히 운행을 못 해요." 제가 "당신은 감히 하시겠어요?"라고 묻자 그는 "당신들이 타겠다면 나도 기꺼이 가겠소"라고 했습

로 갈게요." 약 30분이 지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밖에서 경찰의 기척이 들리지 않자, A는 세수를 하고 선량한 아주머니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차에 있던 세 명의 수련생이 모두 차에서 내려 달아날 준비를 할 때 경찰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수련생의 여동생이 마작 친구 무리를 데려와 경찰들을 에워쌌습니다. 경찰을 아는 사람이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선(善)을 닦는 좋은 사람들이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뭣 하러 잡아가요?" 등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 세 명의 수련생도 그 틈을 타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의 보호와 외곽에 있는 많은 수련생들의 정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갑자기 발생한 난관 속에서도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며 정념정행하여 위기를 넘기고 안전해졌습니다.

5. 지혜롭게 대법 자원을 구하다

1) 대형 자료점의 노출과 용의주도하게 손실을 줄인 일

2010년 이전, 우리 지역은 대형 자료점 위주여서 여러 명이 단체로 자료를 만들었고 저도 그 속에 참여했습니다. 대형 자료점의 장점은 기술 수련생이 이끌어주어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 일을 빨리 익히고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서적을 어떻게 만드는지, CD를 어떻게 굽는지,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는지, 인쇄는 어떻게 하는지, 제본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진지하게 배우기만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인원이 많고 목표가 크며, 소모품 입고량이

많고, 대법서적과 진상 자료를 가지러 오는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찰의 미행으로 발각되기 쉬웠고, 진상을 모르는 일반인의 신고를 받기도 쉬웠습니다. 일단 대형 자료점이 파괴되면 여러 명의 대법제자가 붙잡힐 뿐만 아니라 대법 자원 또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은 제가 자료점에서 막 나와 옆에 있는 우리집에 물건을 가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막 나오자마자 20여 명의 경찰이 아래층과 위층 자료점을 포위하고, 당시 자료점에 있던 모든 수련생을 잡아가며 컴퓨터, 프린터, CD 레코더 및 많은 소모품을 모두 가택수색으로 빼앗아 대형 트럭 한 대에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료점에 자료를 가지러 오는 수련생들에게 서둘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점이 이미 경찰에게 포위됐으니 즉시 발길을 돌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이후 경찰이 떠난 틈을 타 즉시 열쇠로 자료점 문을 열고 먼저 1500위안의 진상 지폐를 찾아내 가져와서 다른 수련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련생 몇 명을 찾아 화물칸이 있는 전동 삼륜차 두 대를 몰고 와서, 경찰이 미처 실어가지 못한 진상 자료, 소모품, 작두, 부품, CD 등을 실어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정문을 이용할 수 없어서, 우리는 먼저 이 물건들을 실내에서 테라스로 옮긴 다음 밧줄과 바구니를 이용해 집 뒤편으로 조금씩 바닥으로 내려 차에 실었습니다. 총 네 차 분량이었고, 두 번에 나누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줄곧 종종걸음으로 뛰어 세 번째 마을 가장자리에 이르렀는데, 바람에 말려 올라간 누런 흙먼지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길 양쪽의 큰 나뭇가지가 '우지끈우지끈' 꺾여 떨어졌고 맞은편 삼륜차는 모두 운행을 멈췄습니다. 잠시 피하자 바람이 조금 약해졌고 저희 둘은 다음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바람이 거세졌는데 마침 순풍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광풍에 휩쓸려 눈도 뜰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이라 농민들이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파종을 기다리고 있어서, 길 양쪽의 푹신한 흙이 바람에 뒤집혀 올라갔고 검은 흙과 길 양쪽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뒤섞여 하늘 가득 날리며 모래바람 터널을 이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바람에 날려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모래바람 터널' 한가운데를 비행하듯 나아갔습니다. 저는 앞에서 달렸고, 어머니는 몸이 무거워 저보다 10여 미터 뒤처져 달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먼저 가라!" 저는 온 힘을 다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바람이 저를 앞으로 밀어 날렸고, 제 외침은 바람에 막혀 어머니께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함께 춤추듯 저와 어머니는 한 시간을 날듯이 달려 20여 리 길을 갔습니다. 저희가 어느 마을에 도착하자 바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따라잡으셨을 때 저희는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그만 껄껄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흙이 너무 두껍게 덮여 얼굴이 변해 마치 아프리카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머리에 쓰신 끈 없는 모자와 손에 든 가방은 온전했습니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삼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연루됩니다. 이렇게 삼퇴에서 빠져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삼퇴를 했습니다.

진상 소형 라디오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아서 매번 몇 개씩 챙겨갔습니다. 종종 골고루 나눠주지 못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막아서며 못 가게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주겠다고 약속해야만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를 따로 알려주며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어느 집 뒷문에서 예전에 대법을 배웠지만 나중에 그만두고 뒤처진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고 아주 기뻐하며, 이곳은 외져서 수련생이 없고 자신은 여전히 대법을 배우고 싶지만 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며, 수련의 인연을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격려했고 다음에 대법서적을 구해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녀가 14급 강풍 속을 날듯이 달리다

사람을 구하러 나올 때마다 저희는 대법 진상 스티커를 챙겨와서 깨끗하고 눈에 잘 띄며 행인이 볼 수 있는 곳을 골라 붙였습니다. 진상 스티커를 다 붙이고 두 번째 마을 사람들에게 진상 알리기를 마쳤을 때 가방은 이미 비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을 어귀에 막 다다랐을 때 어머니 머릿속에 '지수화풍(地水火風)'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읊으셨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래폭풍이에요. 빨리 가요!"

사부님의 가지 아래 당시 저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오직 대법 자원을 보호해 손실을 줄이고 다시는 경찰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저는 집에서 경찰 네 명이 경찰차를 몰고 트럭 한 대와 네 명의 인부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저는 그들이 빈 차를 몰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집 안이 텅 빈 것을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전날 제때 집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2) 가정 자료점을 세우다

그 후 자료점이 곳곳에서 꽃을 피울 때, 진상 알리기 수요를 위해 우리집에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작은 꽃'(가정 자료점)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아직 수련을 잘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정법(正法)이 곧 끝나가는 제한된 시간 속에 저는 더욱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시간을 다그쳐 사람을 더 많이 구하여 하루빨리 원만해 사부님을 따라 돌아가려 합니다.

층차와 수준이 제한적이라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한 차례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

—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 힘 다해 하기 —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1996년 3월, 저는 병이 위중한 남편과 함께 대법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했는데 대법 수련 3개월 후 건강을 회복했고 사부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당시 제 병을 고치려던 생각은 없었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배우고 연공하면서 폐결핵 후유증인 마른기침, 편두통, 불면증 등 증상이 모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대법의 신기함은 제가 확고하게 대법 수련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 30년의 수련 과정에서 사부님 보호 아래 몸과 마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약 한 알 먹지 않았으며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귀도 먹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 않으며 정신이 아주 좋습니다.

신과 사람의 차이는 일념에 달려 있음을 목격하다

2024년 새해 전야,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앞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짐을 실은 화물용 전기 3륜차에 치여 쓰러졌고 차 앞바퀴가 제 오른쪽 다리를 깔고 짓눌렀으며 머리는 정류장 표지판 아래의 받침대에 부딪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후진시켜 다리를 뺐습니다. 일어난 후 시도해 보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이 아주 맑았고 마음속으로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대법제자이니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운전기사 청년은 아주 겁을 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차를 너무 험하게 모네, 할머니가 심하게 부딪혔으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해, 얼마나 많은 마을 사람을 탈퇴시켰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건넨 수많은 진상 자료도 셀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저희 모녀가 사람을 구한 두 가지 작은 이야기를 말씀드려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50여 리 밖의 네 마을

작년 봄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먼 마을로 사람을 구하러 가기로 하고 가방 두 개에 각종 진상 소책자 등을 담았습니다. 정념을 발한 뒤 저희는 버스를 탔고, 30여 리를 간 다음 다시 개인 삼륜차로 20여 리를 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마을 네 곳을 지나며 저희 둘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가할 때 대문 밖에 모여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미 저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어머니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또 오셨네. 몸이 이렇게 좋으시다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든이 넘었어요."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어디 80대 노인 같소. 이 대법 정말 좋네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뭐가 나쁘단 말이오?!"

저희는 그들에게 일일이 진상을 알렸고 대부분은 이미 삼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진상을 들으면 파룬궁이 좋다는 것과 대법 수련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쩌민 같은 소인배가 좋은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지금 진상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박해한 탓에 화근을 심어 연달아 업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재지변과 인재(人災)가 끊이지

다.”

이토록 여러 해 동안 제가 진상을 알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깨닫고 흉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만나도 상서롭게 변한 일이 아주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다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좋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대법제자는 좋은 사람을 뛰어넘는 좋은 사람이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이고 사심이 없는 수련인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진선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여든 넘은 어머니와 함께 200여 개 마을에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구술, 웨이롄(微蓮) 정리

[명혜망] 저는 2010년에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습니다. 수련 후 예전의 지병이 말끔히 사라져 지금까지 병 없이 몸이 가볍습니다. 어머니는 1999년 4월에 법을 얻으셨고 올해 82세이신데, 얼굴에 홍조가 돌고 기력이 넘치십니다.

저와 어머니(수련생)는 비록 북방 농촌에 살고 있지만, 시내 수련생들과 정체(整體)를 형성해 자주 협력하여 사람 구하는 일을 합니다. 20년 가까운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수련의 길에서, 어머니와 저는 일대 200여 개 마을을 두루 다니며 집집마다

니 병원에 같이 가봐요.” 속으로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몇 걸음 걸어보니 걸을 수 있었고 오른쪽 머리가 조금 아팠으며 오른쪽 눈가에 큰 혹이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니 이후에는 차를 천천히 모세요. 오늘 당신은 파룬궁수련생과 부딪혔으니 번거롭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해야 해요.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분신’, ‘자살’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려면 당, 단, 대에서 탈퇴해야 해요.” 그는 단, 대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탈퇴시켜 줄게요”라고 하자 그는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보세요”라고 했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얼굴의 혹은 검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다리도 아팠고 검은 혹이 너무 보기 흉해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찜질을 좀 해서 빨리 낫게 하려 했고 또 자식들이 보고 병원에 가라고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흘째 되던 날 얼굴 절반이 모두 검은색으로 변해 정말 ‘포청천의 얼굴’이 됐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상의한 후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도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정념이 아주 강하니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 것을 알기에 자식들을 안심시키자.’ 사진을 찍어보니 뼈는 온전했고 의사는 연조직 손상일 수 있다고 하며 당연히 휴식할 것을 권했고 ‘근육과 뼈를 다치면 100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진상을 알릴 수 없으니 집에서 마음 편히 며칠간 법공부를 하자.' 생각지도 못하게 며칠을 쉬었는데도 다리는 가벼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아팠습니다. 마치 힘줄 하나가 다친 것처럼 오른발을 땅에 딛지 못했고 걸을 때 절뚝거렸습니다. 평소 매일 아침 정공을 다 연마한 후 사부님 해외 설법을 배우고 오전에 나가 진상을 알리며 오후에는 '전법륜(轉法輪)'을 법공부하고 밤에는 동공을 연마하며 포륜(抱輪) 동작을 1시간 했습니다. 요 며칠 정상적으로 연공도 할 수 없었고 오른쪽 팔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법공부를 할 때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집에서 법공부를 하라고 안배하신 것일까? 아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시급하다.'

안으로 찾아보자. 당일 사고가 나기 전을 회상해 보면 3~4명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는데 그중 두 명은 당원이고 한 명은 촌 간부였습니다. 아주 잘 받아들이자 마음속으로 아주 기뻤고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진상을 알리려 할 때 치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안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혼자 기뻐하던 자만하는 마음가짐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생긴 환희심 때문에 마(魔)에게 이용당해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정념하여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계속 안으로 찾았습니다. 독선, 부주의함, 질투심,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싫어하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체면 등 내려놓지 못한 집착심이 있었

에서 빈틈없이 배관 용접 부위에 한 장 한 장 방사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배관은 이미 받쳐져 있었음). 이때 도랑 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장비를 내려놓고 도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는 아무도 없어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시공 중이던 한쪽 도랑의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공 중이던 임시직 노동자 2명이 전부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붕괴됐다! 붕괴됐다!'라고 소리치며 번개처럼 도랑 바닥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맨손으로 황급히 윗부분의 흙을 파헤치며 진흙 속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한 임시직 노동자가 만져져 그를 끌어냈고, 그는 온몸이 진흙물투성이였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명의 임시직 노동자가 흙에 더 깊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진흙을 파헤쳐 마침내 아주 깊은 곳에서 그를 더듬어 찾았는데, 무너져 내린 흙에 깔린 채 진흙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 억지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온몸이 진흙물투성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숨이 멎어 있었으며 팔 한쪽이 흙덩이에 맞아 부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 흙비탈에 거꾸로 눕혀 놓았고, 몇 분쯤 지나자 그가 깨어났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만약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뭍으로 부르시어 한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면 붕괴로 인해 우리 셋이 한꺼번에 진흙물 속에 묻혀 아무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

것은 비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일러공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보게 됐으며 급여는 보일러를 땔 때의 2~3배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서 꾼 '식사 개선' 꿈은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진상을 안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이 닿는 한 대법제자를 보호하고 있었고 제 환경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3.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비파괴검사원(부품, 재료 또는 설비의 상태를 손상하지 않는 전제하에 전문 장비를 사용해 표면 및 내부 품질을 검사하는 전문 기술자)에게 진상을 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믿으며 제가 준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윗도리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틈날 때면 호신부에 적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글자를 늘 진심으로 외웠습니다.

그가 시공 중 발생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저는 임시직 노동자 2명을 데리고 야외에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였고 앞서 작업한 시공팀이 직경 40cm의 강관을 깊이 약 5m, 폭 3.5m의 도랑 속에 내린 뒤 연결하고 용접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비파괴 장비로 결함을 검사해 합격해야 흙을 덮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용접해야 했습니다. 고압 배관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두 명의 임시직 노동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물 속

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발정념하여 그것들을 제거하고 법공부하며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는 빨리 나을 줄 알았지만 20여 일이 지났고 또 설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사고 후의 일 사일념을 돌이켜보니 처음에는 일념이 아주 바르나 이튿날 사람의 관념이 움직여 민간요법으로 얼굴의 검은 혹을 찜질해 결과가 정반대로 됐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아이들이 근육과 뼈를 다치면 100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았기에 정념으로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지도 못했고 또 꼬투리를 잡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시간도 지체했습니다. 아! 사람의 관념은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자신도 모르게 나와 교란했습니다. '안 된다, 결단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사부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주진리(宇宙真理)에 대하여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는 정념(正念)은 선량한 대법제자의 반석같이 확고한 금강지체(金剛之體)를 구성했으며, 일체 사악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했고, 방사(放射)해 낸 진리의 빛은 일체 생명의 바르지 못한 사상 요소를 해체시켰다. 얼마만큼 강한 정념(正念)이 있으면 그만큼 큰 위력이 있다."(정진요지2-역시 두세 마디를 말하다)

사부님의 말씀은 제 정념을 강화해 주셨고 저는 이 고난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1시간 동안 포륜 동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른발을 감히 땅에 딛지 못해 아픔을 참고 조금씩 밑으로 디뎠고 아플수록 더 힘껏 밑으로 디뎠으며 팔은 위로 올릴수록 더 아파서 두정포륜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 견지했습니다. 정말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렸으며 몇 분 지나지 않아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1시간을 견지

해 옷이 땀에 다 젖었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제 발은 땅을 디딜 수 있었고 2~3일 후 나가서 진상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련이 정말 너무나 엄숙하며 이 고난에서도 사부님께서 저를 대신해 얼마나 많이 감당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수련 중에서 정말 신과 사람의 차이는 일념에 달려 있고 일사일념이 모두 중요합니다.

퇴직 간부가 마침내 삼퇴하다

한번은 한 퇴직 간부에게 진상을 알리며 어디서 퇴직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노동수용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은 틀림없이 당원일 거예요"라고 하자 그는 "당연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만난 것은 다 인연이 있는 것이니 좋은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는 이미 10여 명이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며 탈당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듣지도 않고 탈퇴하지도 않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파룬궁이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나도 70세인 사람이고 퇴직금을 받으며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미 81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보다 나이가 아래이신 것 같네요. 무슨 신단묘약을 먹고 관리했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해 30년간 약 한 알 먹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파룬궁을 연마하면 몸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파룬궁의 기준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대학에 가는 것과 같아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하게 수련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습니

1층 아주머니의 아들은 정처급(正處級) 간부였는데 나중에 우리 그룹 본사의 최고 책임자로 전보됐습니다. 저는 당시 박해를 받아 보일러를 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넓고 밝은 호화로운 방 중간에 큰 원탁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약 17~18명). 파룬궁 박해를 관할하는 우리 직장의 중공 악당 지부 서기(평소 나를 전담 감시함), 그룹 본사 중공 악당 판공실 주임(평소 나를 전담 감시함), 그룹 본사 보위과장(평소 나를 전담 감시함), 그리고 각 산하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옆에 앉아 있었고, 오직 주빈석(상석, 초대받은 주요 손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멍하니 있을 때 아주머니의 아들(최고 책임자)이 반갑게 제 손을 잡고 주빈석으로 끌어다 앉혔습니다. 최고 책임자 곁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들(부하직원)이 주위에 단정히 앉아 새로 온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모신 손님이고 좋은 분이니 앞으로 여러분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대단했습니다.

자주 저를 불러 대화하고 저를 전담 감시하던 그 직장의 중공 악당 지부 서기 등은 평소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갖 트집을 잡으며 사악한 기세를 부렸지만, 이때는 고개를 숙인 채 놀랍고 머쓱하고 질투하는 등 복잡한 표정이었고,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으면서도 감히 드러내지 못해 하나같이 서리 맞은 가지처럼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하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다

대법제자들이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한 끝에, 대법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좋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1. 아주머니가 진상을 알게 되다

앞서 말한 1층 아주머니가 마당에 천창을 낼 때 저는 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아주머니를 도와 맑은 물로 천창 유리를 닦아주면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아주머니는 파룬따파에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올해 84세예요.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간행물인 '지음(知音)' 등을 즐겨 보며 여러 권을 모았지요. 하지만 '천사홍복(天賜洪福)', '명백(明白)' 등 대법 소책자를 본 후로는 예전의 '지음' 등 간행물을 다 버렸고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으며 대법 소책자만 봅니다. 볼수록 명백해지고 볼수록 일리가 있으며, 볼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좋아져 손에서 놓을 수가 없네요. 누가 대법이 안 좋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틀렸어요, 파룬따파는 정법이에요!'라고 말한답니다."

2. 최고 책임자가 식사를 대접하다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상급 간부가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식사가 개선될 겁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일깨워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 저는 그에게 거짓말에 속아 붉은 마귀를 따라서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 언제 어느 날 두 눈을 감으면 끝인데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뭐 하겠소?"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번 일생만이 아니고 영혼은 불멸하며 윤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벌의 옷에 불과하고 영혼이 지탱하고 있으면 바로 사람이며 영혼이 떠나면 바로 한 덩이 고기입니다. 당신이 탈퇴하지 않으면 붉은 마귀의 표지를 달고 그것과 함께 해체돼 영혼이 파멸될 것입니다."

그는 "두 눈을 감으면 끝인데 누가 영혼을 봤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명혜주보에 실린 윤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때마침 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까지 모두 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부님께서 인류의 기원과 사람이 된 목적을 똑똑히 말씀하셨으니 여러 번 보세요." 그는 아주 기뻐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당신들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려 천안문 분신 진상 등처럼 당신들이 선과 악을 똑똑히 가려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탈퇴할게요." 잠시 후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류푸러(劉福樂)'라는 이름으로 탈퇴해 드릴 테니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해야 해요." 그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진상을 알리며 감동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퇴한 후 아주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행한 것은 모두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저는 낡은 주거 단지에 살고 있어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마당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7~8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마당은 직장 직원들이 관리했는데 최근 몇 년 직원들이 모두 이사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지인입니다. 마당 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자원해서 청소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당에 개똥, 고양이 똥이 있으면 자주 치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큰 매트리스를 쓰레기통 옆에 버렸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생각해 밧줄로 묶어 구석으로 끌어다 놓아 크고 작은 차량의 운행을 편하게 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했을 뿐이지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진상을 알릴 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낡았고 곳곳에 작은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주민센터에서 각자 복도의 자기 집 문 앞 작은 전단을 스스로 치우라고 통지했고 페인트도 나눠주며 스스로 벽을 칠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집 문 앞의 작은 전단을 치운 사람도 있었지만, 출근하느라 시간이 없거나 집에 없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들을 도와 전단을 치웠습니다. 제가 벽을 칠했는데 맨 위층은 손이 닿지 않았고 당시 집에 있던 한 청년이 꼭대기 층을 칠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하필 그날 파출소 경찰이 찾아와 파룬궁 수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벽을 칠하느라 지저분해진 모습으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런 진실하고 확실한 행동이 바로 대법제자의 이미지이기에 진상을 알리기가 당연히 쉬웠습니다. 사부님의 세심한 안배라고 생각했고 너무

도리 주머니에 넣고 틈나는 대로 외웠는데, 이것이 매일 법공부를 하고 법을 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감방에 갑자기 완전무장하고 실탄을 장전한 무장경찰 10여 명이 들이닥쳐 각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고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꼼짝 마! 옷을 다 벗고 줄 서서 수색을 받아라!" 감방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기세에 겁을 먹고 모두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옷을 벗은 채 줄을 서서 차례대로 몸수색을 기다렸습니다. 무장경찰은 먼저 실내의 이부자리와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상세히 뒤진 다음,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한 벌씩 뒤졌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첫 일념은 수색하는 사람들이 제 윗도리 주머니에 있는 '홍음' 필사본을 보지 못하게, 그들이 보지 못하게 제자에게 도움을 주십사 사부님께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념이 나오자 정말 신통하게도, 한 무장경찰 우두머리가 제 윗도리를 들고 제 앞으로 와서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는데, 이것은 특별하니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러고는 검사가 끝난 옷 무더기 속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비롭게 제자를 보호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고난을 또 한 번 풀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렸으며, 사부님께서 매 분 매 초 제자 곁에서 제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구치소에 42일 동안 불법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체중이 10.5kg이나 줄었습니다. 저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전부 사부님께 맡기고 사부님께서 결정하시게 하며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행

고 미혹된 사람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하루빨리 진상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해 당당하며 부끄럽지도 않고 남에게 못 보일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공연에서 저는 평소 이상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마지막에 심사위원이 저희 둘의 프로그램이 1등 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욱 감동하게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연말에 전 부서에서 모범직원을 뽑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부서 내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뜻밖에도 저였고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투표자들은 이때 표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모범직원으로 뽑힐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제자에 대한 이 평가와 인정은 금보다 더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확고하게 좋은 사람이 되다

원흉 장쩌민은 대법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과 박해를 점차 격상시켰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 수년 동안 저는 과장에서 평직원으로, 평직원에서 보일러공으로 강등됐고, 보일러공에서 세뇌반으로, 세뇌반에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사악의 박해는 계속해서 격상됐고 바짝 조여왔습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은 저를 구치소로 보냈는데 그곳의 환경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 있는 '홍음(洪吟)'을 모두 작은 수첩에 적어 윗

절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록 평범하지만 사부님께서 매 순간 제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현했습니다.

작년 어느 날, 이웃이 파출소 경찰이 저를 찾아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웃이 그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자주 마당을 쓰시고 우리가 모두 그 할머니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타인을 위해 좋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타인의 관심도 얻게 된다는 것을 정말 체득했습니다. 제가 소형 스쿠터를 샀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기 어렵자 이웃이 자발적으로 시멘트로 경사로를 만들어 주어 드나들기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저 대신 마당을 쓸어주는 사람도 있어서 환경이 아주 좋다고 느끼며 다들 만나면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상은 수련 과정에서 비교적 잘한 일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동시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던 저를 보호하려는 사심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비교적 선량하지만 성격이 연약해 사람의 정과 체면에 쉽게 이끌렸으며, 때로는 사람의 관념이 아주 강해 당당하게 대법을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회상할 때마다 너무 자책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수련 속에서 이런 좋지 않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제고해 올라와 우주 특성에 동화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삼퇴 명단을 발송하며 심성을 착실히 수련하고 자신을 제고하다

글/ 중국 후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고, 올해 72세입니다. 저는 자료점 대법제자인데, 예전에는 자료점이 비교적 바빠서 소수의 수련생에게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 발송을 도와줬기에, 삼퇴 명단 발송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의 실제 작업을 통해 저는 삼퇴 명단 발송 역시 사람의 심성 기준을 매우 많이 시험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아래에 최근 3년간 삼퇴 명단을 발송하며 겪은 수련 체험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 올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나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사는 지역은 중공이 대법제자를 매우 광적으로 박해하고, 수단이 악랄합니다. 악인들은 자주 대법제자의 집에 들이닥쳐 괴롭히고, 가택수색을 하며, 감시 카메라를 핑계로 대법제자를 납치한 후 죄명을 조작해 박해를 가합니다.

더욱 악독한 것은 중공의 인터넷 봉쇄와 사이버 경찰의 전방위적이고, 24시간 감시 강화로 인해, 중국인들이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봉쇄를 뚫고 접속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삼퇴 명단을 발송하는 것이 현지의 어

이런 일이 보통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진작 무너졌겠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 여전히 일찍 오고 늦게 갔으며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해, 대법제자가 '진선인'을 실천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대법제자의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부서 인원이 종종 심야까지 야근했는데 1층에서 3층까지의 계단등이 모두 고장 나서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위험했고, 특히 여직원들은 겁이 많아 무서워했습니다. 이를 본 저는 제 돈으로 상점에 가서 전구를 사다가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밤에 야근할 때 안전하고 밝아졌습니다.

부서에서 상급 기관 관련 업무 성과 발표 웅변대회에 참가했는데, 제가 쓴 원고가 웅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연말에 전 업계 문화 공연 대회가 열렸고 약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 한 명이 함께 연출한 이인극에서 말하고 흉내 내고 웃기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웃어 프로그램 진행자조차 웃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무대 아래에서는 즉각 사람들이 귓속말을 하며 분분히 의논했습니다. "저 사람 파룬궁 수련하다 쫓겨난 그 ○○○ 과장 아니야?" "그가 아직도 무슨 낯으로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보자." 사람들은 모두 일찍이 그 일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기에 앞다투어 목을 빼고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무대 아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불쌍하

은 처장 후보라서 앞길이 구만리인데 굳이 눈앞의 손해를 보지 말고 대충 얼버무리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윗선에서 갑자기 많은 간부가 와서 전 부서 회의를 열고 공식 문서를 대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단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저의 과장 직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자약하고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아침저녁으로 함께하던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서가 어떤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평소에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저 묵묵히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어떤 이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과장에서 평직원으로 변했고, 독립된 사무실에서 부서 구석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모두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많은 직원이 저를 볼 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으며, 제 마음속에도 약간의 머쓱함과 상실감이 생겼습니다.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련이란 곧 어려운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지, 사악이 미친 듯이 박해하든지, 생사에 관계되든지를 막론하고, 당신이 여전히 수련의 이 한 갈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면서 인류사회 중의 어떠한 일도 수련의 길에서 행보를 교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정진요지 2-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제자는 순조로울 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역경 속에서는 더욱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급해하고 있을 때, 외지 협조인 수련생이 100여 명의 삼퇴 명단을 가져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마침 삼퇴 명단 발송 문제로 근심하고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았고, 수련생이 먼 길을 왔는데 실망하고 돌아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삼퇴 명단을 타이핑해 USB에 담아 기술 수련생에게 보내 업로드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지 협조인 수련생이 또 한 무리의 삼퇴 명단을 가져왔고, 저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다른 수련생들이 가져온 삼퇴 명단도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 수련생들은 모두 제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가져온 삼퇴 명단을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 손에 들어오는 명단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작업량이 많은 것은 정말 두렵지 않았고 고생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련생은 직장인이라 매우 바빠서 계속 그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애초에 삼퇴 명단을 기술 수련생에게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진퇴양난의 처지가 돼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이 나와서 정말 이 일을 미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제게 미룰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법제자이고, 이것은 사람을 구하는 일의 일환이며, 또한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땅히 이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인터넷 봉쇄를 뚫을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신기한데, 기술 수련생이 자진해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장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인터넷 봉쇄를 뚫는 방법을 제 컴퓨터에 설치해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기도 하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2. 적시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삼퇴 명단 제출하기

저는 타자를 칠 줄 몰라서 줄곧 소요필(逍遙筆) 필기 입력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느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더미로 쌓인, 종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삼퇴 명단을 보았습니다. 어떤 종이는 손바닥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됐고, 양면에 빼곡히 가득 차게 쓰인 삼퇴 명단 원본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명단들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알았고,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수련생의 노고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할 때 저는 매우 소중히 여겼고 무척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만약 명단이 상세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저는 반복해서 대조해야 했는데, 대조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모니터가 잘 보이지 않으면 한 손으로 한쪽 눈을 가려 쉬게 하고, 다른 쪽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두 눈을 번갈아 가며 컴퓨터를 보니 머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이때면 자신은 늙었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사람의 관념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 번거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나타날 때면 저는 정념을 발해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은 매우 완고해서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났다가도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돼 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창은 우리집 베란다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 좌우 이웃들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베란다를 연결하려면 2층에 나사를 박고 보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1층 사람이 2층 이웃에게 2천~3천 위안을 보상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해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좌우 1, 2층 이웃들은 돈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이므로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으며, 어디든 보강하고 구멍을 뚫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1층 아주머니는 감동해 말했습니다. “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하시려면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후 파룬따파의 훌륭함은 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 모든 부서 직원과 이웃,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되다

1999년 7월, 상황이 급변하여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 정치깡패 집단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해 사람을 때리고 잡아가며 강제노동을 시키고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윗선에서는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것은 이러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正法)이니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회복시켜달라. 나는 계속해서 파룬따파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윗선 간부들이 주마등처럼 매일 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위협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으며, 어떤 이는 “당신

가세요.” 저 혼자만 부서에 남았습니다.

모두 떠난 지 20분쯤 지나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거리의 빗물이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비는 2시간여 동안 내렸고, 사무실 건물 내 다른 부서 사람들은 우산이 없어 물을 헤치며 집에 가거나,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돼 다음 날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사람은 단 한 명도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부서의 우두머리로 여기며 오만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서의 지원 인력으로 여기며 전 부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일할 때 진지하고 성실하며 단결하고 협력해 임무를 빠르고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일과 외에는 웃음꽃이 피고 평화로워 다른 부서처럼 ‘세 여자가 모이면 드라마 한 편을 찍는다(의견이 엇갈리고 관계가 미묘해진다는 뜻)’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서는 매년 업계 우수 부서로 선정됐고, 저도 여러 차례 모범 과장으로 뽑혔습니다. 다른 많은 부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우리 부서로 전보되기를 원하며 이곳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과장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대법의 위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저는 똑같이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지낼 때도 저는 그들에게 파룬따파의 훌륭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집은 2층인데 1층 아주머니가 마당에 천창을 내고 유리로 막아 1층 집안 면적을 넓히면서 햇빛도 들게 해 밝고 따뜻하게

지고 법공부를 했고, 조급한 마음, 번거로워하는 사람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물을 흘리는 일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 앞에서 어떤 사람 마음이나 사람 생각도 모두 마(魔)이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를 교란할 수 없었습니다.

적시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삼퇴 명단을 업로드하기 위해, 저는 제 손에 들어온 명단을 다음 날로 미루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명단이 많아 5~6개 분량으로 나누어 발송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몫을 다 쓰면 즉시 한 몫을 업로드해 발송했습니다. 즉시 인터넷을 끊은 후, 다시 두 번째 몫을 썼습니다. 한 몫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또렷하게 한 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또한 쓰면서 틈틈이 이전에 업로드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며, 명단 원본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접속 횟수는 많아지지만, 시간은 짧아져 더욱 안전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 진정으로 누락이 없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악에 대해 우리는 두렵지 않지만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명단 제출의 진실성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련생이 삼퇴를 권할 때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수량만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가져온 해당 협조인을 찾아가 함께 사부님의 설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노년 협조인은 책임감이 매우 강해서, 직접 그 수련생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진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상을 명확히 알려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고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

다. 그 수련생은 명백해진 후 깊이 동의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간 제자를 보호해주시고 제 수련의 길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셔서 제 자료점이 오늘날까지 평온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신 사부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정진하고 또 정진할 것이며, 더욱 서둘러 자신의 사전대원을 완수하고 사부님을 따라 제 진정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자신을 잘 수련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생을 구하다

글/ 중국 후베이성 대법제자 염결(豔潔)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법을 얻은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81세입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맞아 자신의 약간의 수련 체득을 이야기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갈등 속에서 안으로 찾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없애다

작은딸의 이상한 행동

작은딸은 원래 나의 수련을 매우 지지했지만 최근 2년간 늘 까

좋은 사람

글/ 중국 허난성 대법제자

[명혜망] 1996년 6월 어느 날 아침, 저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동료 집에 놀러 갔다가 방 안에 모셔진 사부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부님 법상(法像)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정수리부터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아주 편안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확고하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제가 근무하던 직장은 그룹 본사의 한 부서로 총 24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장이었고 부과장이 2명 있었으며, 중급 직함 인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70%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10여 개 산하 기관의 관련 업무를 관할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모든 대법제자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출퇴근할 때 일찍 오고 늦게 가며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고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경, 북쪽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곧 큰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미리 우산을 챙기지 않았고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저는 즉시 부서 내 각 방으로 달려가 긴급히 알렸습니다. "10분 안에 모두 컴퓨터를 끄고 하던 일을 멈추세요. 곧 비가 올 테니 당장 퇴근해 집으로

나를 찾지 못해 과연 몹시 조급해했고, 외손자가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CCTV에서 내가 1층 건물 입구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경비원이 다가와 내게 움직이지 말라며 곧 누가 찾으러 올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나를 찾은 후 함께 나가서 밥을 먹었다.

웨양 여행 중 기연을 잃지 않고 사람을 구하다

올해 5월 내 생일날, 아이들이 나를 후난성 웨양(岳陽)으로 놀러 데려갔다. 놀러 간 기간에 아들은 꼭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며 나를 한 고급 용품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1000위안이 넘는 은제 물컵을 사서 기념으로 주려 했다.

나는 큰돈 쓰기를 꺼렸으나 아들은 기어코 사겠다고 고집했다. 아들은 컵 세 개를 샀고, 돈을 다 내고 가게를 나설 때 여주인이 반갑게 우리를 배웅하며 어느 관광지가 재밌는지 알려주었다.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여주인을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시켜 주었다.

평소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삼퇴를 돕는다. 올해 큰딸은 구이저우(貴州)에 9개월을 머물렀는데, 돌아올 때 9명의 삼퇴 명단을 가져와 내게 넘겨주었다.

지금까지 걸어오며 나는 대법을 수련하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신성하고 오묘하다고 느꼈다.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잘 수련하며 중생을 많이 구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닭 없이 나와 다퉜다. 나는 평소 현(縣)에 있는 아들의 개인 회사에서 지낸다. 재작년 어느 날 오전, 작은딸이 나와 외손자를 차에 태우고 고향 내 옛집으로 가, 집 치우는 것을 도와줬다. 집에 몇 달간 사람이 살지 않았기에 문을 열자 곰팡내가 확 풍겼다. 딸은 몹시 불쾌했는지 내게 위생 관념이 없다며 질책하고 원망했다. 나는 좋은 말로 설명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창문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란다.” 말을 마치고 나는 이웃집에 냉동 생선을 가지러 갔다.

갈 때 외손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외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러자 작은딸은 손을 휘둘러 외손자 다리를 세게 한 대 때렸다. 엄마한테 맞아 아팠는지, 점심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외손자는 화가 나서 차에 타려 하지 않았다. 작은딸이 외손자에게 말했다. “외할머니도 화 안 내셨는데 네가 왜 화를 내!” 나는 외손자를 타일러 차에 태웠다.

이 일은 본래 지나간 셈이었다. 뜻밖에도 작은딸이 점심을 먹으러 돌아와서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 방조차 치우지 않는다며 불평했다. 나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누구와도 잘 지내서 경비원이나 취사원하고도 다 잘 맞는단다.” 작은딸은 홧김에 한마디 덧붙였다. “나하고만 잘 못 지내네요!” 그러더니 밥그릇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쳤고 밥그릇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때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딸은 또 방으로 달려가 내가 외손자에게 진상을 들려주려고 준 MP3를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쳤다.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주워 또 내리쳤는데, 연속 세 번을 내리치며 입으로는 큰 소리로 항의했다. “내 아들한테 연공

까지 시키려고 하다니, 고발할 거예요!" 나도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딸이 정말로 나를 고발하지는 않을 거라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고발하려면 해봐라." 딸은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은 어머니날이었다. 우리집은 법공부 팀이기에 몇몇 수련생이 마침 우리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있었다. 작은딸이 손에 600위안을 들고 와 내게 주며 말했다. "기계(MP3 플레이어) 물어드릴게요." 나는 엄숙하게 말했다. "기계는 얼마 안 하지만 사부님께 너무 불경했으니 사부님께 절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딸은 듣자마자 얼른 수련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소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안으로 찾았다. 나와 언니는 모두 고향에 사는데, 언니와 비교하면 내 방은 꽤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도 잘 된 편이었다. 이웃들은 늘 내가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고 칭찬하며 언니보다 훨씬 잘 치운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듣는 데 익숙해져 그저 득의양양했다. 작은딸이 내게 이러는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음을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닦아내기로 결심하고, 정념을 발해 이런 사람 마음을 제거하자 심성이 뚜렷하게 제고됨을 느꼈다.

'고정되지 않은 식사'의 풍파

예전 아들 회사에 직원이 많았을 때는 모두 요리사를 고용해 밥을 지었다. 어느 날 요리사가 내게 말했다. "매일 '고정되지 않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추가돼 식사 명단

나는 난창에 있는 큰딸 집에서 이틀을 묵었는데, 사부님께서 기회를 안배하시어 내게 사람을 구하게 하셨다. 둘째 날, 큰사위가 나를 식당으로 모시고 가려 했다. 두 사람은 먼저 주차장으로 갔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기로 했으며 외손자가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합류하기로 했다.

나는 집을 나설 때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할 생각에 휴대폰을 챙기지 않았다. 내가 한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함께 탄 사람이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그냥 내려가 버렸고 외손자는 어쩌다 보니 미처 타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1층에서 내릴 때 나도 1층인 것을 보고 얼떨결에 따라 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들이 보이지 않자 그제야 내가 잘못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리의 교차로에 가서 큰딸 식구들을 찾아볼까 했지만, 도로 교차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의 한 출구로 갔으나 출입 카드도 없고 문 여는 법도 몰라 나갈 수 없었다.

이때 마침 초등학생 한 명이 오기에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순조롭게 그 학생을 소선대에서 탈퇴시켜 주었다. 교차로에서 그들을 보지 못한 나는 그들이 무척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 여겼고, 전화 연락도 안 되니 얼른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문으로 들어갈 때 또 다른 초등학생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 기회에 이 학생도 소선대에서 탈퇴시켜 주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사이에 6학년 초등학생 두 명을 탈퇴시킨 것이다.

단지로 돌아온 후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큰사위는

다. 우리집에 몇 번 왔던 주민센터 여성 간부가 나를 보더니 다가와 인사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좀 나누었다. 나는 기회를 타서 그녀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마음속으로 당(黨)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 단, 대(黨·團·隊)를 탈퇴해서 재난을 피하고 평안을 지키세요.” 그녀는 곧바로 시원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아들 회사에 외지인인 여성 청소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청소부의 초등학생 두 딸이 놀러 왔기에 나는 두 아이를 소선대에서 탈퇴시켜 주었다.

난창행에서 인연에 따라 사람을 구하다

며느리 친정은 난창에 있다. 예전에 내가 난창(南昌, 장시성의 성도)에 가서 사돈에게 삼퇴를 해줄 때, 당시 사돈은 불교를 믿어 삼퇴하려 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남과 처남댁을 내 앞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삼퇴를 권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들 둘은 모두 탈퇴했다.

작년 9월, 아들의 처남댁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난창 병원에서는 병세가 매우 무거워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네 번의 대규모 화학요법과 여덟 번의 소규모 화학요법을 받았다. 반년 뒤, 즉 올해 봄에 나는 작은딸과 함께 그녀를 보러 갔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져 조리 중인 것을 보았다.

이번에 다시 난창에 갔을 때, 나는 아들의 처남댁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주었고 그녀는 기뻐하며 목에 걸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내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올케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야.” 그녀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번졌고 매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에 없는 사람들, 즉 직원 가족 등을 가리킨 것으로, 식사 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선전에서 돌아와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저녁 식사 전, 집안 여자들이 모두 주방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매일 몇 명이 식사해요?” 나는 며느리에게 대답했다. “고정 인원은 13명이고, 그 밖에 ‘고정되지 않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뜻밖에도 작은딸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는데, 딸의 세 식구가 이곳에 늘 지내고 있었기에 내가 자신들을 빗대어 말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가고 나자, 딸은 화가 나서 내게 말했다. “엄마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든지 다 새언니한테 말한다니까.”

나는 내 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알고 딸과 맞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정념을 발하기 시작해, 대법제자의 수련 환경을 교란하는 일체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정념을 다 발한 후 법공부를 시작했다.

법공부를 마치고 나니 오해하지 않게 작은사위에게도 똑똑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맞은편 방으로 가서 작은사위를 찾았다. 과연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이었고, 내가 온 걸 보고도 부르지도 웃지도 않았다. 나는 작은딸이 보는 앞에서, 작은사위에게 ‘고정되지 않은 식사’라는 말의 유래를 들려주었다. 작은딸은 내가 화가 난 줄 알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더니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작은사위는 내가 그들 일가를 가리킨 게 아님을 알아듣고는 선의로 내게 말했다. “처남댁이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안 물어보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작은사위는 또 작은딸에게 설명했다. “처남댁

이 물어보셔서 장모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법의 기준에 따라 이성적이고 선의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기에, 훗날 온 가족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일이 끝난 후 나는 안으로 찾았다. '나는 수련인이니 응당 수구(修口)해야 하며, 속인처럼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고정되지 않은 식사'라고 말한 것도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며 확실히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겠다. 수련인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큰 뜻을 품고서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으며(懷大志而拘小節)"(정진요지-성자)를 따라야 한다.'

2. 좋은 사람이 되어 중생을 구하다

돈을 돌려주다

나는 매일 '전법륜(轉法輪)' 두 강의를 법공부하고 네 번 정시에 정념을 발하며, 또 기회를 찾아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한다. 4년 전 겨울, 나는 이틀 연속 돼지 족발을 사서 모두에게 삶아 주었다. 첫날에는 20위안어치를 사서 전골냄비에 가득 삶았고, 다음 날에도 20위안어치를 샀는데 당시 족발 세 개를 가져와 냄비에 다 들어가지 않아 절반이나 남았다. 나는 판매자가 물건을 더 주고 돈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가져다주러 갔다.

나는 고기 노점에 가서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다. "족발 세 개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얼마인지요?" 주인이 세 개를 달아보니 40위안어치였다. 내가 말했다. "제가 방금 산 세 개에 20위안만 받으셨으니 20위안을 마저 드릴게요."

당시 돈을 받은 아가씨는 여주인의 친정 조카딸로 초보자였다. 여주인은 조카딸이 무안해할까 봐 조카딸을 감싸며 말했다. "처음엔 다 좀 실수가 있는 법이지요." 여주인은 진작에 진상을 알고 삼퇴를 했으며 대법에 대해 줄곧 존중해 왔다.

정념으로 교란에 직면하고 삼퇴를 권하다

주민센터는 아들 회사 맞은편에 있다. 어느 날, 주민센터 직원이 아들 회사로 와서 아들을 통해 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아들이 내게 알려준 후, 나는 위층 방에서 마당으로 내려가 그들과 마주서서 말했다. "사진 찍지 마세요."

그들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정정하신 거 보려고요." 그러면서 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나는 외손자를 큰 소리로 불렀다. "얼른 네 휴대폰 가져와서 저 사람들 사진 찍어라!" 그들은 그 말을 듣자 황급히 몸을 돌려 돌아갔다.

내가 "다시는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자, 보조경찰이 고개를 돌려 내게 말했다. "파룬궁 좋은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어르신 사람 좋고 건강하신 것도 알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어서 매달 한 번씩 어르신을 챙겨봐야 해요."

나는 이른바 '챙긴다'는 것이 바로 교란임을 알았기에, 그들이 간 뒤 매일 정념을 발해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센터가 내 자녀를 이용해 수련을 교란하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다시 오면 직접 그들에게 삼퇴를 권하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들은 줄곧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주민센터에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마당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부채춤을 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